

## 동사 위치에 따른 문장 분류

김연찬(서원대학교)

### 0. 들어가기: 논의의 범위와 연구목적

독일어에서는 정동사가 문장의 어디에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독일어 문장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정동사가 문장의 첫 머리에 나오는 V1(Verb-Erststellung)-구조와, 정동사가 문장의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V2(Verb-Zweitstellung)-구조와, 마지막으로 정동사가 문장의 제일 끝에 오는 VE(Verb-Endstellung)-구조가 있다.<sup>1)</sup> V1-문장은 의문문 등에서 쉽게 볼 수 있고, V2-구조를 갖는 문장은 평서문 등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 반면에 VE-문장은 종속접속사가 있는 종속절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가상의 비교를 표현하는 'als+접속법 동사'로 된 문장은 종속접속사가 이끄는 종속절임에도 불구하고 VE-구조를 취하지 않는다.

- (1) a. Sie spricht so gut Deutsch, als wäre sie eine Deutsche.  
 b. Sie machte den Eindruck, als wüßte sie Bescheid

뿐만 아니라 종속접속사 *außer* 가 이끄는 문장 역시 종속절이지만 정동사가 문장의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물론 독일어에는 V3-구조가

---

1) 종속접속사가 나타나는 종속절에서, 동사군이 세 개 이상의 동사들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글의 논의에서 제외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장의 세 자리 중 어느 자리도 아닌 곳에 정동사가 위치한다:

- Sie reagierte sachkundiger auf die Signale der Meßinstrumente, als ein ausgebildeter Laborant den Versuch hätte überwachen sollen.
- Der Schrank war zu breit, als dass er durch die Tür hätte passen können.

없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세 번째 자리라고도 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적어도 VE-구조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다.

- (2) a. Es gibt keinen Ausweg, außer wir bitten ihn um Hilfe.  
 b. Sonntags arbeite ich im Garten, außer meine Mutter kommt zu Besuch.

종속접속사와 달리 대등접속사는 문장을 분석할 때 문장 성분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대등접속사로 연결된 문장은 '문장+대등접속사+문장'의 구조로 분석된다. 결국 대등접속사는 문장의 범위 밖에 있어서, 대등접속사가 있는 문장은 V2-구조를 취하게 된다. 그렇다면 대등접속사(weder-) noch 로 연결되는 문장은 어떤 구조를 갖는 문장이라고 해야 할까?

- (3) a. Sie brauchte weder Hilfe, noch bat sie um Rat.  
 b. Er gab mir kein Geld, noch hilft er mir anderweitig.

지금까지 'als + 접속법 동사'로 된 문장은 항상 예외로 다루어져 왔다: 종속접속사가 있는 문장은 항상 VE-구조를 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은 V2-구조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außer-문장은 V2-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 außer가 대등접속사로 여겨져 왔다. 이 글에서는 이런 예외 문장과, außer가 대등접속사라는 주장의 잘못을 다루고자 한다. 더 나아가, 아직 논의가 안되고 있는 대등접속사 noch가 이끄는 문장의 구조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 1. 문장 분석의 기본 틀

김연찬(1998)은 독일어의 복합접속사가 있는 문장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4) [CP [SPEC ] [c' [c ] [CP [SPEC ] [c' [c ] [IP ]]]]]

이 글에서는 독일어 문장의 분석을 위한 기본 틀로 이 구조를 받아들여 고자 한다. 이런 구조를 바탕 삼아서 아래 (5)의 문장에 있는 접속사들의 일관된 쓰임, 의미, 그리고 분석이 가능하다.

- (5) a. Sie arbeitet fleißiger, als wir erwarteten.
- b. Sie reagierte sachkundiger darauf, als wenn ein Laborant den Versuch überwachen würde.
- c. Der Schrank ist breiter, als dass er durch die Tür gepasst hätte.
- d. Ich weiss, dass er morgen zu Besuch kommt.
- e. Im Winter geht er immer spazieren, wenn die Sonne scheint.

이런 분석에서는 als wenn, als dass, 혹은 außer dass 같은 복합접속사를 하나의 단위가 아니라, 두 개의 별개 단위로 본다. 따라서 개개의 접속사는 각기 독립된 자기의 기능과 그 의미를 간직하고 있어서 위 문장들의 의미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5a-c)의 als는 언제나 비교를 표현하는 문장에 쓰이며, (5c-d)의 dass는 의미가 없는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이고, (5b)와 (5e)의 wenn은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 쓰인다.<sup>2)</sup> (4)와 같은 구조에서는 (5b)와 (5c)의 접속사들은 모두 각기 자기 자신만을 위한 별개의 C-자리에 나타나게 되어 자기의 독립성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

2) als dass가 항상 형용사의 비교급과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아래 문장에서 보듯이 비교급대신 'zu+원형' 이 쓰이기도 한다.

- Der Schrank war zu breit, als dass er durch die Tür gepasst hätte.

그러나 이 문장 역시 넓은 의미로 보아서는 비교를 표현하는 문장으로 볼 수 있어서 이때의 'als'도 비교급과 함께 쓰인 'als'와 그 쓰임이나 의미가 똑같다고 할 수 있다.

(6)  $[_{CP} [_{SPEC} ][_{C'} [_{C} \text{ als } ][_{CP} [_{SPEC} ][_{C'} [_{C} \text{ wenn/dass } ][_{IP} ]]]]]]$

그런데 이 구조는 같은 종류의 접속사가 두 개 이상이 연속 나타날 수 있어, 이를 허용하지 않는 독일어 문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규범이 종속접속사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위 예문에서 알 수 있다. 이처럼 두 개의 종속접속사가 겹치는 예는 이 밖에도 더 있다: außer wenn, außer dass, als ob 등등. 보기에 따라서는 außer um-zu 는 3개의 종속접속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유형의 접속사가 2개 이상이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은 오로지 대등접속사에만 적용되는 규범으로 보아야 한다.<sup>3)</sup> 이제 2장에서는 지금까지 전통문법에서 보았던 것처럼 정동사의 위치에 따라서 독일어 문장들을 V1-, V2-, VE-구조로 나누어 보자.

## 2. 전통문법에서의 분류

### 2.1. V1-구조

아래 (7)에서 보이는 예문에서처럼 긍정/부정의 답을 요구하는 단순의문문 Entscheidungsfrage, 명령문, 접속사 wenn이 생략된 조건문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 (7) a. Hast du Zeit?  
 b. Hab Geduld!  
 c. Wäre ich ein Vöglein, würde ich zu dir fliegen.

이 예문들이 보여주듯이, 전통적인 기준에서 본 V1-구조에는 어떠한 형태의 접속사도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대등접속사이든 종속접

3) 이런 사실은 (Duden 1984; 374)에서도 간접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oder aber'를 제외하고는 어떤 대등접속사도 서로 결합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종속접속사의 결합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속사이든 접속사가 있는 문장은 V1-구조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등접속사와 종속접속사를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서 접속사가 있는 문장도 V1-구조를 가질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8) a. (Sie brauchte weder Hilfe,) noch bat sie um Rat.  
 b. (Er ging,) als wäre er lahm.

(8a)의 문장 어순은, 동일한 낱말이 경우에 따라 다른 품사로 쓰여 어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9)-(10)의 문장들과 비교될 수 있다.

- (9) a. (Wir wollten ins Kino gehen,)  
doch bekamen wir keine Karten mehr.  
 b. (Wir gehen fort,) jedoch sind wir bald wieder zu Haus.  
 (10) a. (Wir wollten ins Kino gehen,)  
doch wir bekamen keine Karten mehr.  
 b. (Wir gehen fort,) jedoch wir sind bald wieder zu Haus.

(9)에서 보이는 doch와 jedoch는 부사로 쓰여 주어-정동사의 위치가 바뀐 도치문으로서 V2-구조를 취하고 있다. (10)에서는 이것들이 대등접속사로 쓰여서 주어-정동사의 어순을 한 V2-구조를 갖는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8a) 문장에서도, (9)의 doch나 jedoch처럼, noch가 부사로 쓰여, 이 문장 역시 주어와 정동사가 도치된 V2-구조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상관어로서 부정어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noch는 부사가 될 수 없다. jedoch는 부사로서 문장 가운데에도 나타날 수 있다. 이와 달리 doch는 이것이 불가능하다.<sup>4)</sup> 다시 말해서, 나타나는 자리가 비교적 자유로

4)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doch나 jedoch는 aber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에 한정된다. 이런 쓰임에서는 doch는 jedoch와는 달리 문장 가운데에 쓰이지 않는다. 문장 가운데의 doch는 wirklich, wahrhaftig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Ich habe es dir doch schon drreimal gesagt.

운 부사와는 달리 noch는 나타나는 자리가 항상 문장 첫 머리로 고정되어 있다.

- (11) a. \*(Sie brauchte weder Hilfe,) bat sie noch um Rat.  
 b. \*(Sie brauchte weder Hilfe,) sie bat noch um Rat.  
 c. \*(Sie brauchte weder Hilfe,) und sie bat noch um Rat.
- (12) a. \*(Wir wollten ins Kino gehen,) wir bekamen doch keine Karten mehr.<sup>5)</sup>  
 b. (Wir gehen fort,) ihr bleibt jedoch zu Hause.

따라서 jedoch에 대해서는, 어순의 변화를 가져오는 (9b)의 경우에도, (12b)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사가 되며, 어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10b)의 jedoch는 대등접속사가 됨이 확실하다. 그러나 문장 첫 머리에 나타나 어순의 변화를 요구하는 (9a) 같은 doch는, (12a)에서처럼 문장 가운데에는 쓰일 수 없다. 이 점이 바로 (8a)나 (11a)에서 보듯이 noch와 똑같은 분포상의 특징이다. 이러한 분포상의 특징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쉽게 다음과 같은 잘못된 두 가지 해석 중에서 하나를 택할 수 있다: (9a)의 doch가, (8a)의 noch 와 마찬가지로, 항상 주어와 정동사의 위치가 뒤바뀌는 것을 요구하는 접속사이거나, 혹은 (8a)의 noch가 (9a)의 doch처럼 부사로 해석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위 두 가지 해석이 모두 적절하지 못함을 곧 알 수 있다. 만약 (9a)의 doch가 접속사가 된다면, 이 접속사는 (9a)에서는 정동사-주어의 어순을 요구하지만, (8a)에서는 원래대로 주어-정동사의 어순에 변화가 없다. 뿐만 아니라 (9a)의 doch가 대등접속사가 된다면, 대등접속사는 두 개 이상이 연속될 수 없다는 독일어 규범을 어긴다. 왜냐하면 und, aber, 혹은 denn과 결합하여 ‘und doch’, ‘aber doch’, ‘denn doch’ 같은 표현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doch는

---

- Du bist doch kein Kind mehr.

- 5) (12a)가 문법에 어긋난 문장이라는 것은, 이 문장이 (9a)나 (10a)와 같은 의미로서는 틀린 문장이라는 뜻이다. (12a)에서 doch가 wirklich나 wahrhaftig의 뜻이라면 이것 역시 좋은 문장이 될 수 있다.

부사가 된다(Duden 1984: 374). 또한 (9a)와 (10a)의 doch를 모두 접속사로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noch와 똑같은 분포를 보이지 않음에 주의해야한다. noch는 (13)과 같은 어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 (13) a. \*(Sie brauchte weder Hilfe,) noch sie bat um Rat.  
 b. \*(Sie brauchte weder Hilfe,) und noch sie bat um Rat.

다른 한편으로는 (8a)의 noch를 (9a)의 doch와 같은 부사로 볼 수도 없다. (11)에서 보았듯이 문장 가운데에 나타날 수 없는 성질이 비록 doch와 같다고 할지라도, noch는 doch와 달리 다른 대등접속사와 결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weder-)noch의 쓰임에 나타나는 noch는 (13)에서와 같은 'und noch'의 결합체뿐만 아니라, 'aber noch'나 'denn noch'가 불가능하다. 결국 (8a)와 (9a) 구조의 겹모습이 같다고 하여 이때의 doch와 noch를 같은 품사 혹은 같은 범주 -- 둘 다 도치문을 요구하는 대등접속사라든지 혹은 둘 다 부사라든지 --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이 둘은 각기 따로 취급해야 하는 부사와 대등접속사가 된다. 다시 말해서, (8a)의 noch는 언제나 도치문을 요구하여 정동사-주어의 어순을 취하는 대등접속사이다.<sup>6)</sup> 따라서 이 주장이 옳다면 (8a)의 구조는 V1-구조가 됨이 분명하다. 이런 noch에 대해서는 3.1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 2.2. V2-구조

독일어에서 가장 일반적인 구조가 바로 이 V2-구조이다: 보통의 서술문, W-구문이 있는 의문문, 대등접속사로 연결되는 문장들, 그리고 접속사 denn이나 außer가 이끄는 문장들이 모두 이 구조를 하고 있다.

- (14) a. Gestern hat es sehr viel geregnet.  
 b. Wohin sollte ich die Lampe stellen?

6) weder-noch의 noch가 대등접속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김연찬(1997a)을 참조.

- c. Ich habe Zeit und du hast Geld.
- d. (Es gibt keinen Ausweg,) außer wir bitten ihn um Hilfe.
- e. (Wir essen heute kalt,) denn unser Herd ist defekt.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종속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은 VE-구조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가상의 비교를 표현하는 'als+접속법동사'의 문장 (아래에서는 이를 줄여, 'als-wäre 문장'이라고 하겠다)이 예외적으로 V2-구조를 갖는다고 한다 (Duden 1984, 1996; Hentschel/Weydt 1990).

- (15) a. (Sie machte den Eindruck,) als wüßte sie Bescheid.
- b. (Sie spricht Deutsch,) als wäre sie eine Deutsche.

위 문장에서 접속사 als가 이끄는 부문장 전체를 보면, 정동사가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als-wäre 문장은 V2-구조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생각은 대등접속사로 연결된 문장이 왜 V3-구조가 아니고, V2-구조인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 (16) (Hans fährt nach Hause,) und/aber/oder Maria geht in die Bibliothek.

대등접속사가 있는 문장에서는 정동사가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독일어에는 V3-구조라는 것이 없다. 그 이유는 als 같은 종속접속사는 왼쪽 문장괄호 linke Satzklammer를 이루기 때문에, 어순을 따질 때에는 수에 계산이 된다. 반면에 대등접속사는 문장틀 밖에 있기 때문에 계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등접속사로 연결된 (16) 문장도 V2-구조를 취하고, als-wäre 문장도 V2-구조처럼 보인다.

- (17) a. Vorfeld Satzklammer Mittelfeld Satzklammer
- b. als-wäre sie eine Deutsche



c. und Maria geht in die Bibliothek

그런데 전통문법의 틀에서 보면, 종속접속사 als도 문장괄호가 되고, 정동사인 wäre도 문장괄호가 되어 이 두 성분이 모두 한 자리를 차지하여, 정동사 wäre가 문장의 몇 번째 자리에 있게 되는 지 알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종속접속사인 als가 문장괄호를 이루는 반면에 und같은 대등접속사는 문장괄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그러나 같은 종속접속사인 außer가 이끄는 문장은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sup>7)</sup>

(18)(=2) a. ....., außer wir bitten ihn um Hilfe.

b. ....., außer meine Mutter kommt zu Besuch.

(18)에서 außer가 이끄는 문장은 모두 부사문Adverbialsatz이 되어 부분장이다. 따라서 접속사 außer가 대등접속사가 아닌 종속접속사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Engel 1984: 708ff). 결국 종속접속사 außer는 문장괄호를 이루고,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V3-구조를 취한다고 판단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독일어에는 V3-구조가 없다. als-wäre 문장이나 außer-문장의 구조에 대해서는 3.2.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 2.3. VE-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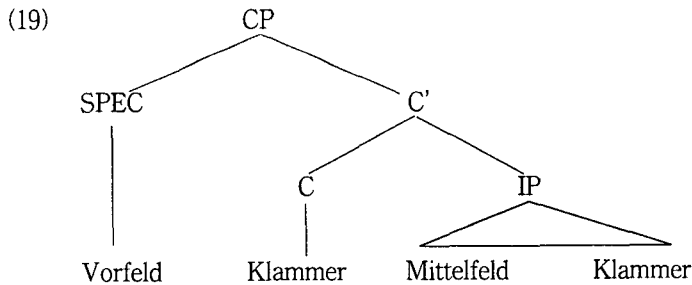
종속접속사가 있는 문장들은 대개 VE-구조를 취한다. 전통문법에서는 여기에 예외를 인정한다. 즉, 위에서 말한 als-wäre 문장과 (18)과 같은 문장은 종속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VE-구조를 갖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이것들을 모두 예외로 다루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3.2.에서 보여주고자 한다. als-wäre 문장의

7) außer 문장에서 보듯이 종속접속사가 항상 VE-구조를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접속사와 어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연찬(1997b)을 참조.

als나 (18)의 außer 같은 접속사는 대등접속사가 아니라 종속접속사임이 분명하다. 종속접속사와 어순과의 관계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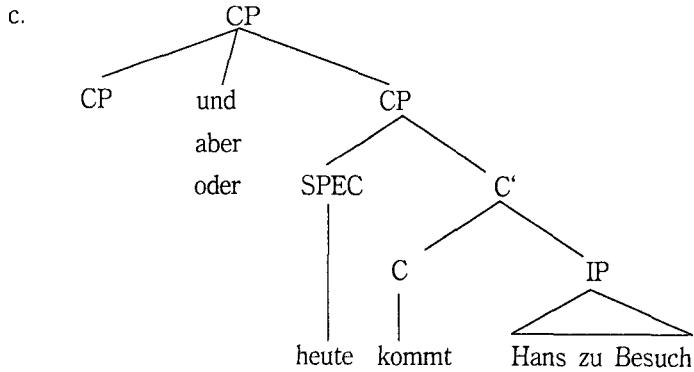
### 3. 새로운 분석과 그 정당성

어떤 문장이 V1-, V2-, 혹은 VE-구조 중에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문장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통 문법의 문장 틀에서 보면 앞밭Vorfeld에서부터 오른 문장팔호rechte Satzklammer까지가 문장의 범위가 된다. 이런 문장의 구조는 아래의 문장 틀과도 일치한다.



이런 개념에 따라 보면, 이 문장 틀 안에 있지 않은, 문장 앞밭Vorfeld 밖의 대등접속사는 문장을 이루는 성분에서 제외되어 어순을 말할 때에 고려되지 않는다.

- (20) a. Vorfeld Klammer Mittelfeld Klammer  
 b. und/aber/oder heute kommt Hans zu Besuch



따라서 (18)의 문장들은 모두 V3-구조가 아닌 V2-구조를 취한다. 그러나 종속접속사는 문장 틀 안에 있기 때문에, 대등접속사와는 달리, 문장을 이루는 성분들의 수로 계산된다.

### 3.1. (weder-)noch 문장의 분석

weder-noch 구문에서 noch는 대등접속사이기 때문에 문장 틀 안에 나타날 수 없다.

(21) a. Vorfeld    Klammer    Mittelfeld    Klammer

b. noch    Ø    bat    er um Rat    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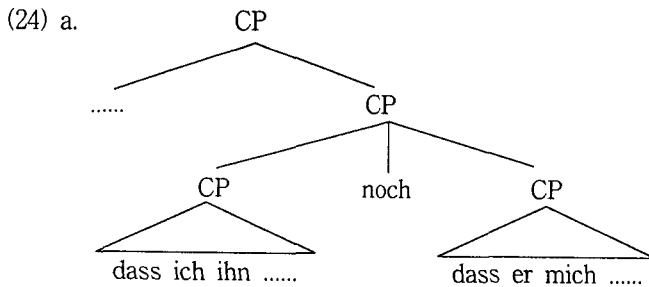
(22) [CP [CP ] noch [CP [SPEC Φ ] [C · [C bat ] [IP er um Ra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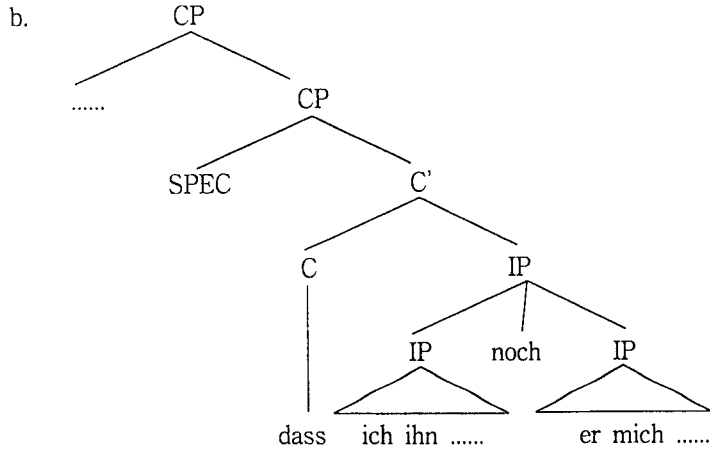
(21)과 (22)에서 보듯이 대등접속사 noch가 나타나는 자리를 빼고 보면, 문장 앞받이 비어 있어, 정동사가 문장의 첫 번째 자리에 있게 된다. 결국 이 문장은 V1-구조를 갖게 되는 셈이다. 이런 분석을 근거로, doch나 jedoch가 부사로 쓰인 (9)의 문장과는 달리, noch-문장은 V2-구조로 보아서 안되고, V1-구조로 보아야만 된다. 결국 대등접속사로 연결된 문장은 모두 다 V2-구조를 취한다는 지금까지의 주장은 수정되어야만 한다. 대등접속사 중에는 noch처럼 V1-구조를 요구하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접속사와 어순과는 하나의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VE-구조를 요구하는 대등접속사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독일어에 왜 나타나지 않는지 논리적 설명이 현재로는 불가능하다. noch가 대등접속사로서 이러한 V1-구조 분석을 요구한다는 것은 다음의 예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 (23) a. (Er erinnert sich, dass ich ihn weder besucht habe)  
           noch dass er mich besucht hat.
- b. (Er erinnert sich, dass ich ihn weder besucht habe)  
           noch er mich besucht hat.
- c. \*(Er erinnert sich, dass ich ihn weder besucht habe)  
           noch hat er mich besucht.

(23)은 noch가 종속접속사와 함께 쓰이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noch가 종속접속사가 아니라 대등접속사임을 말한다. 또한 (23a)에서 두 번째 문장의 dass를 생략하면 (23b)가 된다. 이때에도 noch 다음의 문장은 종속절이 되기 때문에 VE-구조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23c)와 같은 틀린 문장이 생긴다. (23a)와 (23b)의 분석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22)와 같은 구조에서 SPEC-자리가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IP 안에서 어떤 다른 성분이 이 자리로 이동해 올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만약 이 자리로 어떤 다른 성분이 이동해 오면 틀린 문장이 생긴다.

(25) a. \*(Sie brauchte weder Hilfe,) noch sie bat um Rat.

b. \*(Sie brauchte weder Hilfe,) noch um Rat bat sie.

이런 틀린 문장을 막기 위한 장치가 아직은 없다. 아마도 대등접속사 noch의 특징인 것 같다.

### 3.2. als-wäre 문장

Duden(1984, 1996)이나 Hentschel/Weydt(1990)의 주장처럼 이런 als-wäre 문장이 V2-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als가 SPEC-자리를 차지해야만 한다.

(26) [CP [SPEC als ] [c' [c wäre ] [IP ]]]

그러나 SPEC-자리는 IP-안에 있는 어떤 성분이 이동해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종속접속사는 C-자리에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C-자리가 하나만 있는 기존의 구조에서는, 이 C-자리는 종속접속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정동사가 차지하고 있어서 als가 갈 곳이 없다. 그러나 이 글에서 독일어 분석의 기본 틀로 삼는 아래의 구조에서는 C-자리가 두 개 혹은 세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7) [CP [SPEC ][C' [C als ][CP [SPEC ][C' [C wäre ][IP ]]]]]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는 (26)에서와 마찬가지로 als-wäre 문장은 V2-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als가 CP-안의 C-자리에 있기 때문에 CP-밖에 위치한 대등접속사와는 달리 하나의 단위로 인정되어 수에 계산되기 때문이다. 만약 (18)과 같은 außer-문장이 V2-구조이어서 außer가 대등접속사이고, als-wäre 문장이 V2-구조라고 한다면, 단지 그 이유만으로 이때의 als도 대등접속사가 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als가 대등접속사라고 한다면 성분의 수를 셀 때에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als-wäre 문장은 다시 V1-구조가 된다는 결론이다. 이것은 전제와 서로 모순이 되어 전제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außer-문장이 V2-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außer가 대등접속사가 될 수는 없다. 이 접속사는,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부문장을 이끄는 분명한 종속접속사이다. 그렇다면 als-wäre가 V2-구조를 취한다고 할지라도, 이 als가 꼭 대등접속사일 필요는 없다. 만약 이것이 종속접속사로 인정된다면 이 문장은 정말 V2-구조일까? 우선 같은 종속접속사인 außer-문장을 다시 보자.

(28)(=18) a. ...., außer wir bitten ihn um Hilfe.

b. ...., außer meine Mutter kommt zu Besuch.

(28') [CP<sub>2</sub> [SPEC ][C' [C außer ][CP<sub>1</sub> [SPEC wir ][C' [C bitten][IP ]]]]]

이 분석도에서, 이 문장이 V2-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최소 범위의 CP 만

을 생각하면 된다. 여기에서 가장 작은 범위를 지배하는 CP는 CP<sub>1</sub>이다. CP<sub>1</sub>만을 보면 이 구조는 당연히 V2-구조가 된다. 같은 논리로 als-wäre 문장은 V1-구조가 된다.

(29) [CP<sub>2</sub> [SPEC] [C' [c als ] [CP<sub>1</sub> [SPEC] [C' [c wäre] [IP ]]]]]

정동사의 위치에 따라서 문장을 구분할 때에는, 가장 깊이 있는 CP 만을 고려하면 된다. 따라서 (29) 구조에서는 가장 깊이 있는, 그래서 범위가 작은 CP는 CP<sub>1</sub>이다. CP<sub>1</sub> 만을 보면 정동사 wäre앞에 어떤 것도 없어서 이 문장은 V1-구조가 되는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문제는 (29)과 같은 구조에서, IP-안의 어떤 성분도 SPEC-자리로 이동해 올 수 없다.

(30) a. \* ....., als sie wäre eine Deutsche

b. \*[CP<sub>2</sub> [SPEC][C' [c als ] [CP<sub>1</sub> [SPEC sie][C' [c wäre][IP ]]]]]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는 먼저 직접의문문과 간접의문문, 또 접속사 wenn이 생략된 조건문의 구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31) a. Hans fragt, "Kommt sie heute?"

b. Hans fragt, ob sie heute kommt.

(32) a. Kommt sie heute?

b. Ob sie heute kommt?

(33) a. Wenn ich ein Vöglein wäre, würde ich zu dir fliegen.

b. Wäre ich ein Vöglein, würde ich zu dir fliegen.

(31)과 (32)에서 보듯이 간접의문문에서는 C-자리에 접속사 ob가 오면서 정동사는 문장의 제일 끝으로 간다. 반면에 직접의문문에서는 이 C-자리에 정동사가 나타난다. (33)의 문장에서도 조건문이나 가정문을 이끄는 접속사 wenn이 C-자리에 있는 문장은 VE-어순을 한다. 그러나 이 wenn이 생략되면 C-자리에는 정동사가 와서 V1-어순이 된다. 이런 논리에서 우리는

쉽게 (34)의 두 문장 사이의 관계를 알아낼 수 있다.

- (34) a. ....., als wäre sie eine Deutsche.  
 b. ....., als ob/wenn sie eine Deutsche wäre.

(34b)의 접속사 ob나 wenn이 이끄는 문장에서 이 접속사들이 생략되고 그에 상응하는 문장을 만들면 (34a)가 얻어진다.

(34')[<sub>CP2</sub> [<sub>SPEC</sub>] [<sub>C</sub> [c als] [<sub>CP1</sub> [<sub>SPEC</sub>] [<sub>C</sub> [c ob/wenn] [<sub>IP</sub> ]]]]]

als-ob/wenn 구문에서 CP<sub>1</sub>-안에 있는 접속사 ob이나 wenn이 IP-안에 있는 어떤 성분이 SPEC-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 그런 다음에 이 접속사는 탈락하고 대신 그 자리에 정동사가 이동하여 온다. 이것은 (33a)에서 (33b)가 유도되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과정이다.

#### 4. 맺음말과 남은 문제

한 문장 안에 CP를 여러 개 설정함으로써 복합접속사 뿐만 아니라, 전통문법에서 예외로 취급했던 als-wäre 문장도 간단명료하게 설명될 수 있음을 보았다. 또한 전통문법에서는 außer-문장이 V2-구조를 갖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를 대등접속사로 간주하였다. 그런데 실은 이 außer라는 접속사는 부문장을 이끄는 종속접속사임을 전제로, 어떻게 하면 이를 다른 종속접속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를 이 글에서 보여주고자 하였다: 한 문장안 CP가 여러 개 있지만, 가장 마지막의 CP만을 고려함으로써 als-wäre 문장은 V1-구조로, 그리고 außer-문장은 V2-구조로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분석을 따르면, 가장 마지막의 CP에는 C-자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차지하는 하나의 종속접속사 또는 정동사만이 문장성분의 수에 포함된다. 반면에 이 CP-밖에 자리하는 대등접속사는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대등접속사인 noch가 연결하



는 문장은 V2-구조가 아닌 V1-구조를 갖게 되었다. 또한 V1-구조를 갖기 때문에 SPEC-자리가 비어있는 als-wäre 문장의 경우에는, als-ob/wenn 문장과 als-wäre 문장을 비교해 보면, als-wäre 문장에서 왜 SPEC-자리가 비어있어야만 하는가가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noch가 연결하는 문장에서는 같은 V1-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왜 SPEC-자리가 비어있어야만 하며, IP-안의 어떤 성분이 이 자리로 이동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일까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 문제는 아직도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 참 고 문 헌

- 김연찬 (1997a): 「독일어의 쌍접속사 연구」, in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제 2집, 한국독일어교육학회, S. 317-338.
- ders. (1997b): 「대등접속사 denn을 위한 조종을 울리며」, in 『독어교육』 제 15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S. 61-84.
- ders. (1998): 「복합접속사의 분석」, in 『독어교육』 제 16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S. 101-126.
- Buscha, J. (1989): *Lexikon deutscher Konjunktionen*. Verlag Enzyklopädie, Leipzig
- Duden(1984, 1996): *Grammatik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hrsg. und bearbeitet von Günter Drosdowski. Dudenverlag, Mannheim.
- Eisenberg, P. (1986): *Grundriss der deutschen Grammtik*. Metzler, Stuttgart.
- Engel, U. (1988): *Deutsche Grammatik*. Julius Gross/Sansyusya, Heidelberg/Tokyo.
- (1994): *Syntax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Berlin.
- Glück, H./Sauer, W.W. (1990): *Gegenwartsdeutsch*. Stuttgart: Metzler
- Götz, L./Hess-Lüttich, E. W. B. (1989): *Knauers Grammatik der deutschen Sprache: Sprachsystem und Sprachgebrauch*: Droemer Knauer: Lexikographisches Institut: Münch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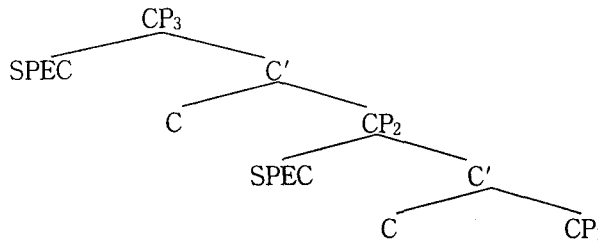
- Heidolph, K. E. et al (1984): *Grundzüge einer deutschen Grammatik*. Akademie Verlag, Berlin.
- Helbig, G./Buscha, J. (1991): *Deutsche Grammatik*. Verlag Enzyklopädie, Leipzig.
- Hentschel, E./Weydt, H. (1990): *Handbuch der deutschen Grammatik*. de Gruyter, Berlin/New York.
- Sommerfeldt, K.-E./Starke, G. (1992): *Einführung in die Grammatik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Max Niemeyer, Tübingen.

## Zusammenfassung

### Klassifikation deutscher Sätze nach der Verbstellung

KIM, Youn-Chan

In dieser vorliegenden Arbeit handelt es sich um die Verbstellung deutscher Sätze. Deutsche Sätze lassen sich in 3 Klassen (V1-, V2-, und VE-Struktur nach der Verbstellung einteilen. Im Rahmen der GB-Theorie gibt es jedoch nur einen Platz, an dem eine Konjunktion auftreten kann. Deshalb muss man für zusammengesetzte Konjunktionen einen Analysenbaum aufstellen, auf dem ihre einzelnen Bestandteile die C-Position einnehmen:



Diese Struktur zeigt eine gute Grundlage, auf der man den 'als-wäre'-Satz für die V1-Struktur halten kann. Einerseits leitet die subordinierende Konjunktion 'außer' auch eine V2-Struktur, weil wir nur mit dem minimalen CP zur Verbstellung zu rechnen brauchen; *Es gibt keinen Ausweg, außer wir bitten ihn um Hilfe.* Andererseits ist der Satz in der V1-Form, den die koordinierende Konjunktion 'noch' mit einen anderen Satz verbindet; *Sie brauchte weder Hilfe, noch bat sie um Rat.* Das beruht auf der Tatsache, dass die koordinierende Konjunktion 'noch' nicht im CP<sub>1</sub>-Bereich liegt.

(Seowon University, 043-261-8532)